

# ‘마른’의 통시적 연구

이 래 호 (남부대)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마른’의 의미 |
| 2. 시대별 ‘마른’의 결합 양상 | 5. 결론       |
| 3. ‘마른’ 구문의 통사적 제약 |             |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고대국어부터 근대국어까지의 ‘마른’의 결합 양상과 주로 중세국어 이후의 ‘마른’의 통사적 특징,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고대국어와 전기 중세국어에서 ‘마른’은 종결 어미와 결합한 예가 주를 이루지만, 선어말 어미에 결합한 것처럼 보이는 예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후기 중세국어 ‘마른’은 수사어문문을 포함하여 평서문, 감탄문 등 모두 진술과 관련된 어미와 결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근대국어 언해 자료와 비언해 자료에서는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에 덧붙여 19세기 후반에 종결 어미 ‘-지’와 ‘마느’이 결합한 양상도 나타난다. 후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언해 자료에서 ‘마른’과 결합하는 어미의 종류가 언해 자료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마른’이 결합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는 선어말 어미 ‘-리-’가 개재되는 통사적 제약이 있으며, ‘마른’의 선행문과 후행문의 주어 제약, 문장 종결 제약은 없었다. ‘마른’은 주로 전제, 양보, 대조의 의미로 쓰이는데, 15세기부터 19세기 까지 때 ‘마른’이 전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마른’의

기본적인 의미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양보, 대조의 의미는 전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마론', 결합 양상, 통사적 제약, 의미, 언해 자료, 비언해 자료

## 1. 서론

본고는 고대국어에서부터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마론'의 결합 양상과 통사적 특징,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론'의 문법적 지위나 결합 양상, 의미에 대해서는 후기 중세국어의 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허웅(1975)에서는 완결된 월에 붙어서, 뒤집는 뜻을 나타내면서 월을 연결해 주는 토씨라고 하였으며 김승곤(1989: 60)에서도 토씨로서, 완결된 월에 붙어서 뒤집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두 연구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첫째, 완결된 월에 붙는다는 것인데, 이는 선행 형식이 하나의 문장이고, 문장은 종결 어미로 끝나므로 '마론'의 바로 앞의 형식은 종결 어미라는 것이다. 둘째, '마론'은 뒤집는 뜻을 나타낸다는 것인데 이는 '마론'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셋째, 월을 연결해 주는 토씨라는 것인데, 이는 문장 연결 조사라는 것이다.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문법소는 어미인데, '마론'은 조사로서 문장 연결의 기능, 곧 문 접속조사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래호 2017:50 참조).

15세기 국어에서 '마론'은 종결 어미로 끝난 문장에 결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허웅(1975)와 김승곤(1989)에서는 '마론'이 종결형에 붙어 문장을 연결하는 특수한 접속조사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남기삼·고영근(1987)과 하귀녀(2005)에서는 '마론'을 보조사로 취급하였다.<sup>1)</sup>

‘마론’을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룬 논의로는 박용찬(1996)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론’을 보조사로 보았다.<sup>2)</sup> 선행 논의에서 ‘마론’이 조사인 것은 대체로 일치된 것이다. 문제는 ‘마론’이 접속조사인지 보조사인지에 관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마론’을 보조사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국어에서 접속조사는 일반적으로 명사구에 결합하여 둘 이상의 명사구를 접속하는 구실을 하지만, 보조사는 어미에도 통합할 수 있는 분포의 자유로움이 있고<sup>3)</sup> 의미를 더해 준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미와 관련하여 접속조사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두 명사구를 접속시키는 문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마론’의 경우 기본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4)</sup> ‘마론’이 종결 어미에만 결합한다는 점, 선행 문장에 의미를 더해 준다는 점에서 ‘마론’은 보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중세국어 ‘마론’이 종결 어미 다음에 쓰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

---

1) 고영근·남기심(1987:89)에서는 ‘마론’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종결형에 ‘마론’이 붙는 것인데 현대국어의 종결보조사 ‘마’의 직접적 소급형이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종결보조사’로 본 것이다. 하귀녀(2005)에서는 ‘마론’의 선행 요소만을 언급하고 기능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국어사 개론서에서 ‘마론’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기문(1972), 안병화·이광호(1990)에서도 ‘마론’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중세국어의 보조사의 목록을 설정한 김진형(1995)에서도 ‘마론’은 제외되어 있다.

2) ‘마론’의 통합 양상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이지영(2007)에서는 ‘마론’의 문법 범주를 밝히지 않았다.

3) 남미정(2016:61)에서는 ‘마론’이 통합하는 단위가 명사나 명사구가 아니라 주로 어미에 후행한다는 점에서 조사 본연의 특징에 다소 벗어나는 면이 있어 보조사 보는 데 대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전기 중세국어에서는 조사 ‘-:/\:(이)여’는 호격 조사의 용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감탄의 기능도 있다. 또한 문장의 끝에 붙여 문장을 종결시키기도 하고 절에 결합하여 절을 접속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박진호(2015:35)에서 이러한 기능 각각에 따라 ‘-:/\:(이)여’를 호격 조사, 감탄 조사, 문장 종결 조사, 접속 조사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문법 범주에 소속시킨다면 그것은 보조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 ‘마론’의 시대별 통합 양상과 문헌의 성격에 따른 통합 양상, ‘마론’의 의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세국어 이후의 자료를 언해 자료와 비언해 자료로 나누어<sup>5)</sup> ‘마론’의 결합 양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마론’의 통사적 특징은 어떠한지, ‘마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시대별 ‘마론’의 결합 양상

### 2.1. 고대국어와 전기 중세국어 ‘마론’<sup>6)</sup>의 결합 양상

‘마론’은 향찰 자료에 ‘馬於隱’의 형태로 한 예가 나타난다.

- (1) 本矣吾下是如馬於隱<sup>7)</sup>(본디 내해다마론느)  
 奪叱良乙何如爲理古(아사놀 엇디흐릿고)<處容歌>(김완진 1980)

(1)을 김완진(1980:93-94)에서 ‘본디 내해다마론느’으로 해독하였다. 김완진(1980) 등<sup>8)</sup>에서와 같이 ‘如’를 종결 어미 ‘-다’로 해독한다면 ‘마론느’은 종결

- 
- 5) 중세국어 이후에 자료를 언해 자료와 비언해 자료(중세국어 자료는 언해 자료와 언간 자료)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마론’의 결합 양상이 자료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 6) 고대국어 및 전기 중세국어에서는 ‘마론’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후기 중세국어 ‘마론’에 대응되는 표기들의 대표형을 ‘마론’으로 한다.
- 7) ‘馬於隱’에 대해 소창진평(1929), 양주동(1965), 지현형(1948)에서는 ‘마론’으로 서재극(1974)에서는 ‘마느’으로, 김준영(1979)에서는 ‘마언’으로 해독하였다. ‘마론’은 중세국어형을 참고한 것이고, ‘마느’은 현대국어형을 참고한 것이다. 김완진(1980)에서는 ‘於’의 훈이 ‘늘’인 점을 바탕으로 기원적으로 ‘를’이었을 것으로 보고 ‘馬於隱’을 ‘마론느’으로 해독하였는데, 유창균(1994)에서는 ‘於’를 ‘탈’로 본다면 그 음 그대로 ‘-마르론’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고려가요에 보이는 ‘마르느’, ‘마르느’을 참고로 하여 우선은 ‘馬於隱’을 ‘마론느’으로 해독한 것을 채택하고자 한다(황선엽 2002 참조).

어미 다음에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른’은 이두자료와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음독 구결 자료에서는 ‘마른’이 ‘-건’과 통합한 형태인 ‘-오ㅓㅓㅓ’, ‘-ㅅㅓㅓㅓ’, ‘-ㅈㅓㅓ’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종결 어미 뒤에서 ‘ㅓㅓ’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2) 가. 走獸飛禽 皆遠去<sub>ㅓㅓ</sub> 四顧寥々<sub>ㅓㅓ</sub> 一境空々<sub>ㅓㅓ</sub> 豈是從來<sub>ㅓㅓ</sub> 无  
侶伴<sub>ㅓㅓ</sub> 爲他毛色<sub>ㅓㅓ</sub> 不相同<sub>ㅓㅓ</sub> 幾度<sub>ㅓㅓ</sub> 江風<sub>ㅓㅓ</sub> 連日起<sub>ㅓㅓ</sub>  
나. 觀惡言<sub>ㅓㅓ</sub> 若了无言<sub>ㅓㅓ</sub> 理不偏<sub>ㅓㅓ</sub> 幾度<sub>ㅓㅓ</sub> 江風<sub>ㅓㅓ</sub> 連日起<sub>ㅓㅓ</sub>  
다. 去聖遠<sub>ㅓㅓ</sub> 邪見深<sub>ㅓㅓ</sub> 我慢纏綿<sub>ㅓㅓ</sub> 味眞佛<sub>ㅓㅓ</sub> 導師<sub>ㅓㅓ</sub> 悲  
濟<sub>ㅓㅓ</sub> 幾辛勤<sub>ㅓㅓ</sub> 愛河<sub>ㅓㅓ</sub> 暫出<sub>ㅓㅓ</sub> 還沈沒<sub>ㅓㅓ</sub>  
(3) 가. 夫法本無爲<sub>ㅓㅓ</sub> 對境而立<sub>ㅓㅓ</sub> 心非有相<sub>ㅓㅓ</sub> 隨物而現<sub>ㅓㅓ</sub>  
나. 如摩登伽<sub>ㅓㅓ</sub> 宿爲婬女<sub>ㅓㅓ</sub> 由神呪力<sub>ㅓㅓ</sub> 鎖其愛欲<sub>ㅓㅓ</sub> 法中  
다. 情想合離<sub>ㅓㅓ</sub> 有生<sub>ㅓㅓ</sub> 皆具<sub>ㅓㅓ</sub> 此<sub>ㅓㅓ</sub> 以多分<sub>ㅓㅓ</sub> 言耳<sub>ㅓㅓ</sub>  
다. 情想合離<sub>ㅓㅓ</sub> 生<sub>ㅓㅓ</sub> 잇느니 다 곶건마른 이<sub>ㅓㅓ</sub> 한<sub>ㅓㅓ</sub> 分<sub>ㅓㅓ</sub> 으로<sub>ㅓㅓ</sub> 니르<sub>ㅓㅓ</sub> 실<sub>ㅓㅓ</sub> 쓰르<sub>ㅓㅓ</sub> 미라<sub>ㅓㅓ</sub>

(2)는 중세국어 ‘마른’에 대응되는 ‘-ㅓㅓ’이 의문형 종결 어미 ‘-ㅓㅓ’ 뒤에 쓰인 예이다. (2)의 예들은 종결 어미 다음에 쓰였다는 점에서 (1)과 공통점이 있다.

(3)의 ‘-오ㅓㅓ’, ‘-ㅅㅓㅓ’, ‘-ㅈㅓㅓ’은 후기 중세국어의 ‘-건마른’에

8) 소창진평(1929), 양주동(1965), 지현형(1948), 서재극(1974), 김준영(1979) 등에서 ‘如’를 모두 ‘다’로 해독하였다.

9) 음독 구결 자료에서 ‘-오ㅓㅓ’, ‘-ㅈㅓㅓ’의 ‘-ㅈ/ㅓ’는 다른 선어말 어미와 대치되는 계열관계를 형성하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오ㅓㅓ’, ‘-ㅈㅓㅓ’에 다른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예도 보이지 않고, ‘\*ㅓㅓ(-ㅓ마른)’이 어간에 직접 통합된 예도 보이지 않는다. ‘ㅓㅓ’이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때는 항상 ‘-오ㅓㅓ’, ‘-ㅈㅓㅓ’의 고정된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 시기 ‘-건마른’이 통합형 연결

대응된다. 한편 (3나)의 ‘-ㅅㅓㅓㅓ’에 ‘ㅓ’이 아닌 ‘ㅓ’이 쓰여 그 형태가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만, 이 역시 ‘-건마련’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3다)의 ‘-ㅅㅓㅓ’은 ‘-ㅅㅓ’ 다음에 ‘ㅓ’이 결합되지 않고 바로 ‘ㅓㅓ’이 결합되었다. ‘-ㅓㅓㅓㅓ’이 ‘-ㅓㅓ’의 ‘ㅓ’과 함께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할 듯하다.

첫째, ‘-ㅅㅓㅓㅓ’에서 ‘ㅓ’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자료에서 ‘-ㅅㅓㅓㅓ’(3나)이 쓰이고 있고, 또한 같은 자료에서 중세국어 ‘-ㄴ덴’에 대응되는 ‘-ㅓㅓㅓ’이 ‘ㅓ’이 생략된 채 쓰이는 예<sup>11)</sup>도 보이기 때문에 ‘-ㅅㅓㅓ’도 ‘-ㅅㅓㅓㅓ’을 고려하여 ‘ㅓ’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ㅓㅓ’이 선어말 어미 ‘-ㅅㅓ’에 직접 결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기림사본 능엄경><sup>12)</sup>에서 ‘ㅓㅓ/ㅓㅓ’이 결합된 형태 중 ‘-ㅓㅓ’이 결합된 형태는 세 번 나타나는데 모두 ‘-ㅅㅓㅓ’으로만 나타나고, ‘-ㅓㅓㅓ’은 한 번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ㅓㅓ’이 선어말 어미 ‘-ㅅㅓ’ 다음에 직접 통합될 수

어미였을 가능성이 있다(이래호 2005:67).

10) ‘-ㅅㅓㅓㅓ’의 구성을 ‘-ㅅㅓ+ㅓ(관형사형 어미)+ㅓ(의존명사)+ㅓ(대격조사)’로 파악한다면, 목적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하는데, ‘ㅓ’과 호응하는 서술어를 찾을 수 없어, ‘-건마련’의 표기로밖에 볼 수 없다(이래호 2005:67).

11) <기림사본 능엄경>에서 ‘-ㅓㅓㅓ’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類例上義 ㅅㅓㅓㅓ 全一妄耳 ㄴㅓㅓ<기림능엄 2:49a>

나. 微細思惟 ㅓㅓㅓ 其變ㅓ 寧唯一紀二紀ㅓㅓㅓ<기림능엄 2:3b>

다. 若曰能知 ㅓㅓㅓ 卽非香生 ㅓㅓ<기림능엄 3:21a>

라. 故… 同他心量ㅓㅓ 設若非知 ㅓㅓ 然 此法塵 ㅓ 旣非色等 ㅓ<기림능엄 3:15b>

(가)는 ‘-ㄴ덴’으로 대응되는 ‘-ㅓㅓㅓ’에 ‘ㅓ’이 나타나는 예이고, (나)~(라)는 ‘-ㅓㅓㅓ’에서 ‘ㅓ’이 나타나지 않는 예이다. <기림사본 능엄경>에 ‘-ㅓㅓㅓ’은 89번 나타나고, ‘-ㅓㅓㅓ’처럼 ‘ㅓ’이 개재된 ‘ㅓㅓㅓ’도 146번이 나타나며, ‘-ㅓㅓ’은 위 예 3개가 전부이다. ‘-ㅓㅓㅓ’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ㅓㅓ’은 ‘ㅓ’이 생략된 형태이다.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기림사본 능엄경>은 1127년의 간기(刊記)를 갖고 있는 중국 판본이다. 간기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매우 이른 시기의 판본임은 확실하며, 이 자료에 기입된 음독구결은 늦어도 13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선어말 어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종결 어미 아니면 연결 어미이기 때문에 ‘ㄴ’은 어미가 된다. 이에 따라 <기림사본 능엄경>의 구결토가 기입되었다고 추정되는 13세기 후반 이전 시기에 ‘ㄴ’이 ‘-’ 다음에도 결합될 수 있고, 선어말 어미 다음에도 결합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다음 (4나)와 같은 사실에 의해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고려가요에서는 ‘마른’이 종결 어미에 결합하지 않는 예들이 보인다.

(4) 가. 잡사와 두어리마느는 선후면 아니 올세라<樂章, 가시리>

나. 八月八 보로몬 아오 嘉俳 나리마른 니를 피서 녀곤 오늘날 嘉俳샏다 <樂章, 동동>

다. 西京이 서울히마르는 닛곤 더 쇼성경 고외마른 여히르른 질삼뵈 브리 시고<樂章, 서경별곡>

(4가)의 ‘두어리마느’는 ‘두-+-거-+-리+마느’<sup>13)</sup>으로 분석되어 ‘마느’의 의문형 종결 어미 ‘-리’와 결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 (1), (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4나)의 ‘나리마른’과 (4다)의 ‘서울히마르’, ‘고외마른’이다. 이들은 문맥상 ‘-건마른’, ‘-이라마른’이 쓰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이나 종결 어미가 나타나 있지 않다. 표기된 것으로만 보면 각각은 ‘날+이-+-마른’, ‘서울ㅎ+이-+-마르’, ‘고외/고요+이-+-마른’ 정도로 분석되어 모두 계사 ‘이-’ 다음에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사 어간 다음에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어미이므로 (4나), (4다)의 ‘마른/마르’는 어미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곧 이들은 표면상 (3다)와 같은 결합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취하기가 어렵다. 첫째의

13) 이에 대해 황선엽(2002:98)에서는 ‘마르느’는 계사 ‘-이-’ 뒤에 통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하귀녀(2005:260)에서는 한 형태가 보조사적인 쓰임과 어미적인 쓰임을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마른’은 ‘도’, ‘샤’와 함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해석을 취하면 (4나), (4다)를 설명할 수 없고, 둘째의 가설을 취한다면 동일한 자료에서 나타나는 동명사 어미 ‘ㄱ’ 탈락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고<sup>14)</sup> ‘마론’이 종결 어미에 결합한다는 일관된 설명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은 표기된 모습만으로는 ‘마론’이 고대국어와 전기 중세국어 자료에서는 종결 어미 다음에 결합하는 특성도 있었고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뒤에도 결합하는 예들도 있었다는 것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sup>15)</sup>

앞의 (1)과 (2)는 모두 ‘마론’이 종결 어미에 결합한 예들이다. (3가)와 (3나) ‘-ㅁㅅㅅㅅㅅ/ㅁㅅㅅㅅㅅ’의 ‘ㅅㅅ’ 역시 (1), (2)와 마찬가지로 종결 어미에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명사 어미 ‘-ㄴ’이 종결 어미로 가능한 예들이 신라 시대 이두자료<sup>16)</sup>에서 보인다는 점과, 국어의 동명사 어미가 역사적으로 문장의 종결에 쓰였다는 황선엽(2002)의 견해도 참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2)의 ‘-ㅁㅅㅅㅅㅅ/ㅁㅅㅅㅅㅅ’은 ‘-ㅁㅅㅅㅅㅅ-(선어말 어미)+ㄱ(종결 어미)+ㅅㅅ(보조사)’의 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2.3. 후기 중세국어 ‘마론’의 결합 양상

다음은 후기 중세국어 언해 자료<sup>17)</sup>에서 볼 수 있는 ‘마론’의 예이다.

- 
- 14) 만약 ‘ㅅㅅ’이 선어말 어미 ‘-ㅅ-’에 직접 결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면, ‘-ㄱㅅㅅ’도 ‘-ㄱ’ 없이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다음에 직접 결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 15) ‘마론’이 어미적인 특성이 있었다면,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어미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고 종결 어미에 결합하는 특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 16) 이금영(1999:23)에서 ‘一切檀越并成在(일체 단월이 함께 조성함)<無盡寺鐘記>’의 문장이 종결되는 위치에 나타나는 ‘在’는 뒤에 ‘-ㅅ’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在’가 동명사형 어미가 통합된 ‘\*견’으로 보고 여기의 동명사형 어미 ‘-ㄴ’이 문장 종결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남풍현(1996)은 이두에서 의도법 어미 ‘-오-’와 어말 어미 ‘-ㄴ’이 결합된 ‘乎’가 동명사 어미로 기능하면서 동명사 어미 ‘-ㄴ’이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 바 있다.
- 17) 후기 중세국어에서 자료를 언해 자료와 인간 자료로 구분하였다.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인간을 제외하면 ‘마론’이 나타나는 비언해 자료는 없기 때문에 굳이 언해 자료와 비언해 자료로 구분할 필요 없고, 인간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언해

- (5) 가. 阿難아 이 사르문 夢中에 엇데 靜호며 뒤며 열며 다드며 通호며 마고  
 몰 스랑호리오마른 그 얼구리 비록 자나 듣는 性은 어딴디 아니호니라  
 <능엄경언해4: 130b>
- 나. 華嚴 性海 곁호닌 엇데 正位 아니료마른 十住入 처섬과 妙覺 내종애  
 즈로 記笈을 듣조오시니 니르산 淸淨心과 니르산 殊勝境界 엇데 업스  
 리오<법화경언해3: 55b>
- 다. 妾은 엇데 王의 得寵호요몰 호오사 코자 아니호리잇고마른 妾은 드로  
 니 지브 거지블 여러홀 두문 사르미 能을 보나 호니<내훈언해2:20b>
- 라. 太子 | 니르샤디 恩惠사 모르리어마른 네 가짓 受苦를 위호야 호노라  
 호시고<석보상절3: 35a>
- 마. 몇 디위를 江강風봉이 여러 날 닐어노마른 고기 낫는 비 돕는다 듣디  
 몰호라<남명집언해: 40b>
- (6) 가. 福德이 分明호며 果와 因과 어딴디 아니호도다마른 能히 四句偈를 퍼  
 면 알피셔 더오미 萬倍호 功이리라<금강경삼가해2: 72a>
- 나. 오직 世尊이 이해와 滅度호시니 우리나라해서 供養호습디비 그되내 굿  
 비사 오도다마른 舍利사 몰 어드리라 호야눌<석보상절23:53a~b>

박용찬(199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기 중세국어에서 ‘마른’은 (5가)~(5  
 다)와 같이 설명 의문 어미에 결합한 예가 대부분이다. 드물게는 (5라)~(5마)  
 와 같이 판정 의문 어미 뒤에 결합하기도 하고 (6)의 ‘-도다’<sup>18)</sup>와 같이 감탄  
 형 종결 어미 뒤에 결합하기도 한다. 언해 자료를 중심으로 후기 중세국어의  
 ‘마른’의 통할 양상을 고찰하면, ‘마른’이 (5), (6) 이외의 종결 어미에 결합한  
 예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종결 어미도 다음과 같이 의문형 어미가 전체의  
 약 95.6%를 차지할 만큼 ‘마른’이 결합하는 어미는 의문형 어미에 집중되어  
 있다.<sup>19)</sup>

자료와 비언해 자료로 구분한 것이다.

- 18) ‘-도다’는 감탄형 선어말 어미 ‘-도-’와 평서형 어미 ‘-다’의 결합된 것이므로 ‘-  
 도다’는 평서형 어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병희·이광호(1990) 등에서  
 ‘-도다’를 감탄형 어미로 분류한 견해를 따라 본고에서도 ‘-도다’를 감탄형 어미  
 로 분류한다.
- 19)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 ‘마른’의 예로 오해될 만한 ‘네브터 오매 즐기는 이를  
 이제도 能히 호는다마른 다 늘거 가매(舊來好事今能否 老去新詩誰與傳)<두시언  
 해(초간)9: 26b>, 중간두시언해 9: 26b>’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能否’을 언해

[표 1] 후기 중세국어 언해 자료에서 ‘마른’이 결합하는 어미

구분	어미	15세기		16세기	
의문형 어미	-뇨	6	19.4%		
	-리오/-료	20	64.5%	15	100%
	-려	2	6.5%		
	-리잇고	1	3.2%		
감탄형 어미	-도다	2	6.5%		
계		31	100%	15	1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른’이 결합하는 의문형 어미는 ‘-뇨’를 제외하고는 ‘-리’가 개재되어 있는데, ‘-리-’ 개재형들은 모두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sup>20)</sup> ‘-뇨’는 설명 의문문을 이루지만, 이들 역시 문맥상 청자의 답을 요구하는 실제 의문을 나타낸다고보다는 의문으로 표현하는 사실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세기의 언해 자료는 극히 드문데, 15세기 언해에서는 ‘마른’이 나타나지 않는다.<sup>21)</sup> 언해에서 ‘마른’은 16세기부터 ‘마는’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선행 어미의 종류가 15세기의 언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어미의 종류보다 훨씬 다양하다.

- (7) 가. 아이고 슬 마리 만타마는 췌히 저저 몬 스로다<순천김씨묘-3>  
 나. 밤의사 와 겨시디 무스히 와 겨시니 깃브오이다마는 췌 게 기별 수이 모르올 겨시라 민망호오이다<진주하씨묘-45/곽씨-131>  
 다. 나도 완느니 타자기나 무스히 호여 가새 나는 도히 완너마는 자내롤

한 ‘호는다 마는다’의 잘못이다.

20) 박진완(1998:348)에서는 17세기 자료를 귀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의문문의 종결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가) 수사의문문에만 쓰이는 것: -리오, -췌녀, -리잇가  
 (나) 일반의문문과 수사의문문에 두루 쓰이는 것: -료, -라

21) 15세기 말 언해으로 추정되는 <신창맹씨묘출토언해>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배영환(2012)를 참조.

- 그리 성터 몰흔 거술 두고 와 이시니 흐르도 믹음<순천김씨묘-049>
- (8) 가. 어버이 동성을 아니 그리리 어더 이시리마는 엇디 이런 설운 이를 보  
 게 흐뎃던고<순천김씨묘-3>
- 나. 처를 어덧거니 흐고 본디 히여 주디 말 것 아니가마는 제조차 어려서  
 그리히예라<순천김씨묘-034>
- 다. 모즈 스이 서럭 격흐□□ 이리 이실고마는 나도 □ 나 만코 □□흐 후  
 는 정시니 업서 아모 일도<순천김씨묘-189>
- (9) 가. 히 길고 싱각흔 시는 모기 며여 눈물 덜 저기 무흔히여라마는 길히 머  
 니 속저리라<순천김씨묘-124>
- 나. 나리 치위디니 엇디허거노 니즌 시 업세라마는 내 몸 안자서 게오 그  
 는니 도라볼 히미 업세라<순천김씨묘-149>
- (10) 가. 싯흐 너니리니마는 윤디나 춧과다 흔들 쉬오랴<순천김씨묘-094>
- 나. 감 더비나 어더 보내니라 민 서방 지빔 싱일 미처야 티니마는 현마  
 엇디 보내리<순천김씨묘-085>
- 다. 내 저 어엿버 어더 주어 오시나 두드기 니피고져 흐다가도 내 믹스미  
 나 다르랴 너겨 머초워 몰흔게 흐다니 며느리사 내 정 모르고 구지럼  
 7티 흐거니썸나마는 나는 다 헤아리고 아니타니마는 조식 스식 버뇌  
 몰 쓰러 타작하고<순천김씨묘-034>

(7)은 언간에서 평서형 어미와 결합한 ‘마는’의 예를 보인 것이다. 언해 자  
 료에서 볼 수 없었던 어미들이다. (8)은 의문형 어미와 결합한 ‘마는’의 예들  
 을 보인 것이다. 언해 자료에서는 (5마)와 같이 ‘마는’이 ‘-뇨’에 결합한 예가  
 보이기는 하였지만, 언간에서는 ‘-뇨’로 끝나는 어미와 결합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마른’이 설명 의문 어미와 더이상 결합하지 않는 것은 의문형이라는  
 서법 자체에 대한 제약이라기보다 의미적인 제약으로 볼 수 있다.

(9)는 ‘-어라’에 ‘마는’이 결합되었다. 이곳의 ‘-어라’는 (9나)의 ‘-에라’와  
 함께 감탄형 어미로 볼 수 있는 어미이다.<sup>22)</sup> (10)은 ‘마는’이 어미 ‘-니’와 결  
 합하였다. ‘마는’이 ‘-니’와 결합하는 것은 (5)~(9)에서 보았던 ‘마는’이 종결  
 어미와 결합한다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으니’는 전체의 의미도 가졌는데,

22) 이곳의 ‘-어라’는 이미 15세기 말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감탄형 선어말 어미 ‘-에  
 ->-어-’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에->-어-’ 변화의 예로는 ‘오히려 決斷흐야 아  
 디 몰흐야이다」〈육조법보단경언해 중:80〉’를 들 수 있다.

이 전제의 ‘-으니’는 텍스트의 의미 단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3)</sup> (10)의 예들은 의미 단락을 완결시키는 ‘-니’에 의해서 앞서 서술한 내용을 완결시키되 그것을 다음 문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마른’이 결합한 것이다. 종결성이 강한 ‘-니’와 ‘-마른’이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마른’이 종결 어미와 결합한 다른 예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5세기, 16세기에 ‘마른’이 ‘-니’ 외의 다른 연결 어미와 결합한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0다)는 보조사 ‘이썸’과 감탄조사 ‘이여’가 결합한 ‘이썸녀’<sup>24)</sup>가 변화한 ‘-이썸나’가 연결 어미 ‘-니’에 결합한 수사의문문에 다시 ‘마른’이 결합한 문장이다. 곧 ‘-마른’은 보조사 다음에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썸녀’는 후기 중세국어에서 문장을 종결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썸나’에 결합한 ‘마른’ 역시 문장을 종결하는 형태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후기 중세국어 언간 자료에서 ‘마른’이 결합하는 어미

구분	어미	분포
평서형 어미	다/라	16
	-녀	2
	-쇠	1
	-ㅣ	1
감탄형 어미	-에라/여라	3
	-도다	1
의문형 어미	-리	2
	-르고	2
	-랴	12
의문첨사	가	1
어미	-더니	5
기타	-니썸나	1
계		47

23) 연결 어미 ‘-으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현희(1994: 62~65), 황선엽(1995)를 참조하기 바람.

24) ‘-이썸녀’에 대해서는 장윤희(1996)을 참조할 수 있다.

후기 중세국어 언간 자료에서 ‘-마른’의 결합은 다양한 평서형 어미에 결합한다는 점, 감탄형 어미 ‘-도다’ 외에 ‘-에라/여라’와 같은 어미에 결합한다는 점, 어미 ‘-니’에도 결합한다는 점에서 언해 자료와 차이가 있다. 의문형 어미의 경우 호소체 등급의 어미에도 결합된다는 점, 감탄형 어미의 경우 호라체 어미에도 결합한다는 점에서 언해 자료와 차이를 보인다.

후기 중세국어에서 ‘-마른’의 결합상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의문형 어미와 결합하고, 이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수사의문문은 의문문에 속하지만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발화 효력에 있어서는 평서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은 ‘마른’은 수사의문문을 포함하여 평서문, 감탄문 등 모두 진술과 관련된 어미와 결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에 나타나지 않던 평서문, ‘-니’, ‘-이쁘나’와 같은 환경에서 ‘마른’이 결합하는 것이 16세기에 언간 자료에 나타나는 점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른’의 분포가 확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 둘째, 고대국어나 중세국어에 자료의 제약으로 다양한 분포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16세기 언간에서와 같이 ‘마른’의 분포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순천김씨묘출토언간>과 같은 한 집안의 편지(189건)에서 ‘마른’이 후기 중세국어 언해 자료보다 많이 나타나고 그 어미의 형식도 다양하다는 점은 언간의 구어적 특징을 고려하게 만든다. 황선엽(2002), 이지영(200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른’이 구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해 자료보다 언간 자료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른’은 문어성이 강한 언해 자료에서 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15세기에도 구어적으로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

25) 이러한 내용은 황선엽(2002)에서 언급되었다.

### 2.3. 근대국어 ‘마느’의 결합 양상

후기 중세국어에서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어미에 ‘마른’이 결합할 수 있었던 특징, ‘-니’에 결합하는 특징이 근대국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만, 감탄형 어미와 결합하는 예는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형태상으로는 ‘마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16세기 인간 자료에서 나타났던 ‘마느’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의 비음운화에 의한 ‘마느’의 형태도 나타난다.

다음은 근대국어 언해 자료에서 보이는 ‘마른’의 예이다.

- (11) 가. 가히 스랑호오미 님금이 아니가마는 니르되 가히 무허리라 햏야 이피 우리 성궁을 무허고<천의소감언해,천의소감발:2a>
- 나. 이전의도 내 여긔 와서 자네네 指南을 어더 저기 말도 햏더니마는 常常 ㅅ디 아니모로 헝로 더곰 이려햏니 心中에 ㅅ고져 햏는 일도 잘 ㅅ디 못햏고<침해신어(초간본)9:12b>
- 다. 괴금이 곁으디 분햏다 우리와 작반햏더면 조햏 ㅅ 햏엿노라 우리도 그리로 가는 사름이 아니나 리도 | 곁으디 그려햏지마는 압희 가는 사름이 고집이 대단햏야 사름으로 더부러 화목지 아니햏고 눈 아래 사름이 엷는 것처럼 녀이며…<턴로력명,121b>

(11가)는 의문첨사 ‘가’에 ‘마느’이 결합한 예이고 (11나)는 ‘-니’에 ‘마느’이 결합한 예이며, (11다)는 19세기 후반에 ‘-지’에 ‘마느’이 결합한 예이다. 이들은 모두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언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결합이다. 근대국어 언해 자료에서 ‘마느’이 후기 중세국어 언해 자료에 비해 다양한 어미와 ‘마느’이 결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비언해 자료<sup>26)</sup>에 나타나는 ‘마느’의 예들이다

26) 후기 중세국어에서 자료를 언해 자료와 인간 자료로 구분하였지만(각주 17 참조) 근대국어에서는 언해 자료와 비언해 자료로 구분하기로 한다. 근대국어에서 인간 외에 일기와 같은 필사 자료, 신문 자료 등 언해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언해 자료와 비언해 자료로 구분한 것이다.

- (12) 가. 내 마음을 펴지 못하여 조식의 도리를 한 일 못 하니 썩테마는 온갖 일을 생각하노라 하니 어일가 시본고<선세언독-26>
- 나. 대신이 깃거워 굴어디 그대와 구의도 잇거니와 그대의 지략이 범인과 다른 줄 아는 터이게 말일세마는 이번 욕을 갈흠경디이면 죽어도 여한이 업슬 터이니 적당한 계책을 교유하게<1898독립신문>
- 다. 오늘 보내오니 알시롭습마는 집이 제 형도 업는디 이셔 유익지 아니 호오니 보내오나 못 잇치옵 <김성일가-050>
- 라. 조성이를 주어 달나 하니 착실이 너도 닐너라마는 조성 쓰고 아니 주면 굶을가 불상하다<송준길가-71>
- 라'. 빅성의 말이 그러면 순검들 아모도록 원슈갓흔 신문들이나 좀 보게호시오마는 이일에 잘못된 순검 또 떼여 먹지 마시오 그것도 불상한 대한 성명이오<계국신문,0830>
- 마. 인편의 빅면을 조금 어더 보내고 빅면 만그는 법을 괴별하면 맛드로 보자마는 잘될지 모르겠다<추사가-35>
- 바. 또 물과 다른 성미는 물은 줄여지지도 아니 호거니와 느릴 슈도 업지마는 공기는 느리기도 홀지라<대조선독립협회회보,7>
- 바'. 외조부 고을의 같는다 자랑한다 하니 드러가면 조체마는 저의 집의서 아니 보낼 거시고 너모 어린 것 드러가기도 둥난홀 듯 호옵<김성일가-009>

(12가)의 ‘썩테마는’은 ‘썩--+더--+이+마는’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는 호소체의 평서형 어미이다. (12나)는 평서형 어미 ‘-을세’에, (12다)는 평서형 어미로 쓰인 ‘-습’에 ‘마는’이 결합한 예이다. (12라), (12라')과 (12마)는 중세국어에서 볼 수 없었던 명령형 어미 ‘-어라’, ‘-오’와 청유형 어미 ‘-쟈’에 ‘마는’이 결합된 예이다.<sup>27)</sup> 중세국어에서는 ‘마른’이 주로 진술을 나타내는데

27) 이지영(2007:331-332)에서 명령형 어미 및 청유형 어미의 결합은 19세기 말 이후에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시기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결합이 현대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시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비언해 자료에서 ‘마른’과 명령형 어미와의 결합은 18세기부터 나타나며, 청유형 어미와의 결합은 19세기 초부터 나타난다. 이지영(2007)에서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와 ‘마른’의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합은 현대국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가. 글세,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서 의논을 해 볼시다마는, 그런 수령이 있으면 우선 감영에다 보장을 올려야 하겠지요.<녹두장군 3>(표준국어대

어미에만 결합을 하였는데, 근대국어에서는 ‘마논’이 수행을 요구하는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와도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2바)는 ‘-지’의 방언형으로 추정되는 ‘-제’와 ‘마논’이 결합한 예이다. 언해 자료에서는 ‘-지마논’은 19세기 말 <턴로력당>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비언해 자료에서는 그보다 조금 이른 시기인 19세기 초부터 나타난다.

근대국어 언해 자료와 비언해 자료에서 ‘마논’이 결합하는 어미들을 정리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근대국어 언해 자료에서 ‘마논’이 결합하는 어미

구분	어미	분포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의문형	가(첨사)		2	
	-르가		3	
	-르고		3	
	-랴	1		
	-리오	25	102	17
	-리잇가		5	
	-리잇고		3	
평서형	-다/라			2
	-지			1
명령형	-어라			1
감탄형	-도다	1		
연결 어미	-더니	4	5	
계		27	118	21

사전)

나. 그리 하고 싶으면 해라마는 나는 책임 못 진다.(권정림 1997: 67의 예문)  
 곧, 중세국어, 근대국어에서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가 ‘마논’과 결합한 예가 그리 많지 않지만, 현대국어에서의 결합 양상을 보면 근대국어에서의 이들의 결합이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4] 근대국어 비언해 자료<sup>28)</sup>에서 ‘마른’이 결합하는 어미

구분	어미	분포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의문형	가(첨사)			2
	-르가	7	2	2
	-르고	1	2	3
	-랴	12	10	19
	-리	1		17
	-리오	7	18	125
	-리잇가	7	5	8
	-리잇고	3	3	
평서형	-다/타	9	12	17
	-니			2
	-옵/습			10
	-이(테)		1	1
	-르세/세			4
	-지/제			50
명령형	-오			1
	-어라		1	
청유형	-자			1
연결 어미	-더니	4	2	3
계		47	54	262

근대국어 ‘마른’의 결합 양상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후기 중세국어에서도 그렇지만, 의문형 어미와 결합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들은 모두 수사의 문문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언해 자료에서 근대국어 후기에 ‘-마른’이 평서형 어미와 결합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종결 어미 가운데 의문형 어미와 평서형 어미, 감탄형 어미에 ‘-마른’이 결합하고 이에 덧붙여 근대국어에서는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에도 ‘-마른’이 결합하므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종합하면 ‘마른’은 평서형, 명령형, 의문

28) 여기에서 통계에 쓰인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활용하였는데, 통계에 쓰는 그 창작(언해) 시기 및 시기를 알 수 없는 대다수의 판본 소설이나 필사본 소설 자료는 제외하였다.

형, 감탄형, 청유형 어미에 두루 결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어미 유형에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은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본고의 대상이 되는 언해 자료, 비언해 자료에서 감탄형 연결 어미에 결합하는 예들은 18세기부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8~19세기 소설로 추정되는 <완월회맹언>에 ‘도다’와 결합한 ‘마는’이 나타나고<sup>29)</sup> 20세기 자료에 감탄형 어미와 결합한 예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자료적 한계로 보인다. 또한 ‘-이쁘나’가 ‘마른’과 결합한 예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장윤희(1996:37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쁘나’ 구문이 이미 15세기 당시에 그 쓰임이 활발하지 않았고 16세기의 쇠퇴기를 거쳐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그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근대국어 ‘-마는’의 결합에서 또 다른 특징적인 것은 ‘-지마는’이다. 19세기부터 나타나는 ‘지마는’에 대해 이현희(1993)에서는 연결 어미 ‘-디뵈’에서 변화한 ‘-지’에 ‘건마는’이 혼효되어 ‘-지마는’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용찬(1996:186)에서는 ‘-지마는’이 형성된 당시에도 ‘마는’이 활발하게 쓰였으므로 혼효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으로 볼 필요가 없이 ‘-지’라는 연결 어미에 ‘마른’이 통합되어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한편 이지영(2007)에서는 ‘-지마는’, ‘-지만’이 연결 어미 ‘-지’가 아니라 종결 어미 ‘-지’와 ‘마른’에서 변화한 ‘마는’, ‘만’이 결합한 형태가 문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0)</sup>

29) 즉순이 턴흥의 아빈 듯 흐여 보지 아니터니 경계흐를 비로소 흥으의 아빈 드시 보도다마는 이십 여세에 머느리가 어이 이시리오 즉순은 승어부(勝於父)호도다. <완월회맹언권180,9b>

30) 이지영(2007)에서는 19세기 말 ‘-지’는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로 활발히 사용되었으며, ‘마른’이 주로 종결 어미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19세기말부터 평서형 어미와 결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이 ‘-지만’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곧 ‘마른’이 역사적으로 주로 어말 어미와 결합하는 경향, 19세기 말 ‘-마는’이 평서형 어미와 활발하게 결합하던 경향에 영향을 받아 종결 어미 ‘-지’와 ‘마는’, ‘만’이 결합하여 ‘-지마는’, ‘-지만’이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로 연결 어미 ‘-지’는 초점이 선행절에 있지만, ‘마른’이 결합한 문

실제로 중세국어에서부터 근대국어 말까지 ‘마른/마논’이 종결 어미나 종결성이 강한 ‘-니’, 문장 끝에 쓰이는 ‘-이쁘나’ 등에 결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지영(2007)의 주장대로 ‘-지마논’의 ‘-지’는 연결 어미일 가능성보다는 종결 어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5바’)은 19세기 초의 예인데 이 시기 근방에 ‘-제’가 종결 어미<sup>31)</sup>로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3) 세 가지는 부디부디 닛지 말고 수이 알게 흐여라 부치 보닌 거슨 그리흐  
 마 성욱 줄 듯흐니 이후에 오면 알제 살부치 날 흐나만 다고 이만 그친다  
 모도 업셔 못 흐다 흐면 대단이 미편홀다<김성일가-139>

(13)은 동사 ‘알-’에 ‘-제’가 결합한 예이다. ‘-제’가 쓰인 문장과 뒤의 문장은 “(부채 보낸 것을) 성욱이 줄 듯하니 이후에 오면 알 것이다. 살부채 나에게 하나만 다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제’가 연결 어미일 경우, 이지영(200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문과 후행문이 대조적이어야 하며 초점은 선행문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13)의 ‘-제’ 앞뒤 두 문장은 서로 대조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이다.<sup>32)</sup> 또한 연결 어미 ‘-지’는 후행문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sup>33)</sup> 그러나 ‘-제’ 다음 문장에는 명령문이 왔다. 따라서 (13)의 ‘-제’는 종결 어미임을 알 수 있다.<sup>34)</sup> ‘마른’이 후기 중세국어에서부터 근

장은 초점이 후행절에 있다는 것을 들었다.

- 31) 본고는 ‘-디비’에서 변화한 ‘-지’에서 종결 어미의 ‘-지’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박영준(1994)에서는 종결 어미 ‘-지’는 다른 형태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원래 종결 어미로 기능했으며, 이 ‘-지’는 계림유사의 ‘-지’로 소급되며 16세기에 국어에 종결 어미 ‘-어’와 함께 문중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계림유사의 ‘-지’는 ‘-다’로 해독된다는 점, 16세기에 종결 어미 ‘-지’로 문중된다고 든 예문 ‘손조 밥 지서 먹고 가지’<번노 상 39b>의 ‘-지’는 소망을 나타내는 ‘-지’의 오독이다. 그러나 박영준(1994)은 ‘-지’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32) ‘-지’는 현대국어에서 ‘해라체’에 해당하는 등급인데, 예문에서 문장들의 화제는 ‘하라체’인데, ‘-제’ 역시 ‘하라체’의 종결 어미로 볼 수 있다.
- 33)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오면 그 문장의 초점은 후행절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 34) 19세기 초반에 ‘-제’나 ‘-지’가 종결 어미로 쓰인 예들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인간에 종결 어미로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시기에

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종결성이 강한 어미나 종결 어미와 결합하는 경향에 따라 종결 어미 ‘-지/-제’와 결합한 것이 곧 ‘-지마는/제마는’이다.

### 3. ‘마른’ 구문의 통사적 제약

‘마른’은 그 자체가 연결 어미도 아니고, ‘종결 어미+마른’이 하나의 연결 어미로 재구조화된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마른’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연결 어미가 두 문장을 연결할 때 통사적 제약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마른’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어떠한 제약이 나타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마는’과 결합하는 평서형 어미에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는 양상이다.

- (14) 가. 대개 거짓말이 아니라 계교할 시는 일덩 올뒸터라마는 아니 드려 가  
니라<계축일기下:13b>  
나. 악한 풍속이 잇스니 부인들을 빗과 공기가 녀넉지 아니 혼 더다 가도  
어 더와 더의 즈녀들이 고성을 받게호는 거시니라마는 빗치 도흘 때  
에는 그 빗을 쏘이면 병도 낫되 어린 아히들은 자쵸 히빳해서 두통을  
엇느니라<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4호>  
다. 신씨 굴으디 그는 그리호리다마는 벼슬 거취가 엇지 내게 들녔쇼 폐  
하의 처분이시지요 호는지라<독립신문제155호>  
라. 세상 사물이 다 네귀 말호여 다 시힘을 호나 날이 쓰지 아니호엇다마  
는 이번은 시힘호여라<김성일가-139>

‘-다/라’ 앞에 선어말 어미 (14가)는 ‘-뒸-’과 ‘-더-’, (14나)는 ‘-시-’와 ‘-니-’, (14다)는 ‘-리-’, (14라)는 ‘-엇-’이 결합한 예이다. ‘마른’과 결합하는 평서형 어미가 취할 수 있는 선어말 어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었을 것으로

---

종결 어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판단된다.

그러나 ‘마론’과 결합하는 의문형 어미<sup>35)</sup>는 그 사정이 다르다. 후기 중세 국어의 경우, ‘마론’이 결합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는 선어말 어미 ‘-리-’를 결합시킨 경우가 대다수이다<sup>36)</sup>. 이러한 사정은 근대국어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또한 후기 중세국어에서 ‘마론’에 결합되는 ‘-뇨’는 모두 ‘-거-’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 있다. 곧, 중세국어에서 ‘마론’과 결합하는 의문형 어미의 경우 ‘-리-’와 ‘-거-’만 통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국어에서 ‘마론’에 ‘-뇨’가 결합하는 예들이 사라지면서, ‘-거-’와 결합하는 예들도 나타나지 않는다.

‘-더니마논’의 경우는 ‘-더-’가 결합하지 않은 ‘-니마논’이나 ‘-더-’ 이외의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예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더니마논’은 ‘마논’이 ‘-니’ 앞에 결합할 때는 항상 ‘-더-’를 선접해야 한다는 선어말 어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37)</sup>

‘마론’이 결합한 문장과 후행 문장은 서로 주어가 같아야 한다거나 달라야 한다거나, 주어의 인칭이 한정된다는 제약도 없다.

(15) 가. 나는 다 헤아리고 아니타니마논 즈식 스시 버뇌 몸 뿌러<순천김씨묘-034>

나. 그되내 굿비샤 오도다마론 숭리샤 물어드리라<석보상절23:53b>

다. 아이고 슬 마리 만타마논 죠희 저저 몸 스로다<순천김씨묘-003>

라. 노니는 아드론 멧마 좡이 고해 불어든 들거노마론 닌즈시 本來 | 믝  
스물 일허 브리눗다<남명집언해下:34a>

35) ‘마론’과 결합하는 의문형 어미의 예는 앞의 (5)와 (6), (8)에서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36) 후기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의문형 어미에 ‘-리-’가 결합하지 않을 경우 추측을 나타내는 ‘ㄹ’이 결합되어 있다.

37) 16세기 인간에서부터 나타나는 ‘-더니마논’의 경우 항상 ‘-더-’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니’를 이미 재구조화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다 헤아리고 아니타니마논 즈식 스시 버뇌 몸 뿌러<순천김씨묘-034>”의 ‘아니타니마논’과 같이 ‘-더니’에 ‘-오-’가 개재한 ‘-다니’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15가)는 선행문의 주어가 1인칭이고 (15나)는 주어가 2인칭 (15다)와 (15라)는 주어가 3인칭인 예를 든 것이다. 또한 (15가)와 (15나)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주어가 동일한 예이고, (15다)와 (15라)는 주어가 서로 다른 예이다. 곧 ‘마른’은 주어에 대한 제약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마른’의 후행문으로 오는 문장들은 평서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의문문과 감탄문, 명령문이 오는 경우도 있다.

(16) 가.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此良乙何如爲理古(본디 내해다마른 아사늘 었 디ㅎ릿고)<處容歌>(김완진 1980)

나. 이제 二百員納子 | 東京과 西洛과 애흔 더레 나아 혼 道場에 드러 간 디마다 촌 것 슬히 너기고 더운 것 드사 머구물 그만더만 흐야노마른 또 혼 사르미나 雲門의 胡餅을 아느너 모르느너<금강경삼가해3:52a>

다. 이러듯 혼 사름이 고로 處티 아니ㅎ는다 었디 能히 定흠이 이시리오 마는 었디 나를 顧티 아니ㅎ느뇨 日이며 月이 下土에 이 冒ㅎ야 겨시 니 이러듯 혼 사름이 서르 好티 아니ㅎ는다<시경언해2:6b>

라. 슬프다 님 모즈가 음스리요마는 卮상과 날 갖튼 모즈의 슬움이 어디 잇스리요<한중록,300>

마. 寫蘭이 豈有香가마는 暗然襲人 ㅎ듯다<가곡원류,022安致英>

바. 달이 두렷ㅎ야 碧空에 걸너세라 万古 風霜에 써러점즉 ㅎ다마는 至今에 醉客을 爲ㅎ여 長照金樽ㅎ여라<가곡원류,326>

(16가)~(16다)는 후행문이 의문문인 경우이고, (16라)는 의문문이지만 수사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16마)는 감탄문, (16바)는 명령문인 경우이다. 19세까지 후행문이 청유문인 예들은 보이지 않지만, 수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령문이 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수행을 의미하는 청유문도 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sup>38)</sup>

38) 현대국어에서 후행문에 청유문이 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경 써 들겠냐마는 가서 얘기해 보자.

#### 4. ‘마른’의 의미

허웅(1975:365)에서 ‘마른’이 “뒤집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김승곤(1989:60)에서도 “뒤집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박용찬(1996:171-173)에서 ‘마른’은 기본적으로 양보의 의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양보 외에 전제의 의미 기능도 가진다고 하였다.<sup>39)</sup> 하귀녀(2005:258)에서는 주로 ‘역접’ 또는 ‘양보’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허웅(1975)나 김승곤(1989)에서의 “뒤집는 뜻”이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전 연구들에서 ‘마른’은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의가 된 듯하다. ‘양보’의 의미 외에 박용찬(1996)에서 언급한 ‘전제’와 하귀녀(2005)에서 언급한 ‘역접’의 의미도 주목할 만하다. 중세국어에서 ‘마른’을 공유하고 있는 ‘건마른’의 경우 양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대조의 의미와 전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40)</sup>

‘마른’은 보조사로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마른’이 어떤 의미로 가장 많이 쓰였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마른’은 종결어미에 결합하여 뒤에 오는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연결 어미처럼 앞뒤 문장의 관계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먼저 의문형 어미와 ‘마른’이 결합한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마른’은 의문형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의문은 대부분 수사의 문문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수사의문문은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은 화자가 인정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의 서술적 표현을 더욱 강조하여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선행문에 수사의문문이 오면 그 문장은 전제의

39) 박용찬(1996: 172-173)에서는 양보의 의미를 가질 때 선행문이 수사의문문인 경우 후행문에서 이 수사 의문이 나타내는 강한 당위성이나 의도 혹은 의지가 충족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는 전제의 의미도 가져 전제적 양보라 할 수 있을 듯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양보의 의미를 가져 양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양보적 전제라 하였다.

40) ‘-건마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래호(2005)를 참조할 수 있다.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17) 가. 阿難아 이 사르든 夢中에 었데 靜하며 뛰며 열며 다드며 通하며 마고  
뭇 스투흐리오마른 그 일구리 비록 자나 듣는 性은 어둡디 아니흐니  
라<능엄경언해4:130b><sup>41)</sup>

나. 었디 만기지무를 급즉이 다 잘흐실 길이야 잇스오리잇가마는 보도를  
잘하여 그르쳐 드러야 될 일이니 속이 답답호오이다<순원어필-2-07>

다. 슬프다 비록 성인이나 었지 욕이 업스리오마는 성인은 즈연이 절의  
마자 천리에 합하고 중인은 절치 못호고로 인욕의 흐르느니<어제자성  
편언해내:03a>

(17가)는 사람은 꿈속에서 靜하며 움직이며 열며 닫으며 통하며 막음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얼굴은 비록 자더라도 듣는 성은 어둡지 않다.” 정도  
로 해석된다. ‘성은 어둡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 또는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  
른’이 결합한 선행문을 제시한 것이다.<sup>42)</sup> (17나)는 (주상이) 여러 정무를 잡  
자기 다 잘하실 수는 없음을 일반적인 전제로 하여 이끌기를 잘 하여 가르  
쳐 드러야 될 일임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다)의 후행문은 성인의  
욕은 자연스럽게 절에 맞고 천리에 합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인데, ‘마른’이  
결합한 선행문에서 성인이 욕이 있음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다음 (18)은 선행문의 내용은 화자가 확신하는 내용 또는 진실이지만 그  
로써 예상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이 후행절에 나타나는 예들이다.

(18) 가. 나도 피과 물을 배혀 天下를 세헤 눈호아 몸이 장쉬며 지상 드외어

41) <기림사본 능엄경>에서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마른’의 결합 없이 ‘ㅈㅈ’로  
종결지었다.

阿難 ； 是人 1 夢中 ； 豈憶靜搖開閉通塞 ㅈㅈ 其形 ㄴ 雖寐 ㄴ ； 聞性 1  
不昏 ㄴ ㅈㅈ<기림능엄 4:54a>

문장을 종결지었다는 것은 선행문과 후행문이 대조나 양보의 의미 관계가 없  
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42) (17가)에서 ‘마른’의 후행문은 접속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접속문의 선행문  
이 양보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마른’ 선행문은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  
기 어렵다.

손에 동흔 군스를 자바시니 구하면 므스 거슬 언디 못흐며 호고져 호  
면 므스 거슬 일우디 몬호리오마론 後主드려 날오디 … 님금을 소기  
디 아니호리이다<번역소학8:19b-20b>

나. 임이야 날 싱각호라마는 못 이즐가 호노라<악학습령,796>

다. 남미간이나 비려흔 말이 쥬홀고마는 싱각다 못 이리호니<송병필가  
-56>

(18가)는 군사를 통제하게 되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임금은 속이지  
않을 것임을 표현한 것이며, (18나)는 임은 날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는 임  
을 못 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역시 선행문의 내용에서 예  
상되는 기대와 후행문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선행문과 후행문은 양보  
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18다) 역시 남매간의 곱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면 안해야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기대(생각)할 수 있지만, 실  
제로는 비려한 말을 하고 있으므로 양보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sup>44)</sup>

다음은 선행문과 후행문이 서로 내용상 대조를 이루는 예문들이다.

(19) 가. 어마님은 초여들애날 밤의 희산은 계유 무스히 호니 다형호기를 어어  
이 다 그을호리마는 어제 밤부터 비를 알코 명치 아래도 알코 피가  
원 나디 아니호니 그러호디 국도 잘 못 먹는 듯호니 민망호디<선찰  
-9-109>

나. 의외 사름 오나날 글시 보고 든든 반갑기 측냥업고 몸들이나 그만치  
나 무스히 이시니 가지가지 식힌 깃브기를 어어 다 덕을고마는 어어  
만양 몸이 그리 무거워 디내논고 실노 굵굽흔 일이로쇠<송준길가  
-37>

다. 세상의 엇지 형테 업스리오마는 엇지 날 갖튼 재 이시리오<어제자성  
편언해內:07a>

43) 양보와 대조는 상례적 함축이 가능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본고에서 (23)의 예  
들은 상례적 함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만약 상례적 함축이 불가능하다면 ‘마는’  
은 대조의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44) 수사의문문과 결합한 ‘마론’이 양보의 의미로 쓰일 때, 선행문은 수사의문문의  
내용이 그렇듯이 현실세계에서 참이거나 화자가 그렇다고 믿는 내용만이 올 수  
있다.

(19가)는 해산한 것은 말할 수 없이 다행한 일이지만 배를 앓고 피가 위  
 낙 나지 앓고 국도 잘 못 먹는 것은 민망하다 정도의 의미로 이 문장은 주  
 어도 대조될 뿐만 아니라 서술어의 의미도 대조되고 있다. (19나) 역시 선행  
 문과 후행문은 무사한 것과 몸이 무거워 지내는 것, 시원하고 기쁜 일과 갑  
 갑한 일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 (19다) 역시 선행문과 후행문의 주어와 서술  
 어가 대조되고 있어, ‘마른’이 두 문장을 대조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문과 후행문을 전제, 대조, 양보의 관계  
 로 연결시키고 있지만, 다음 (20)과 같이 선행문의 내용에 이어 후행문에 추  
 가로 다른 내용을 더 드는 경우도 보인다.

(20) 이제나 흐리옵신 기별 듣죽을가 바라옵고 잇습다가 또 덤덤 심흐옵신 기  
 별을 듣죽고 병셔도 못 보옵고 외오셔 망극 아득 췌스오몰 엇디 내내 알  
외오오령까마는 므슴 죄를 짓고 그리 등흐신 병뎡의도 못 보옵거뇨 생각  
 흐옵고 가스미 타는 듯 췌스오몰 던홀 더 업스오이다<진주하씨묘-080/곽  
 씨-121>

(20)은 선행문에서 병중에도 못 봐어 아득 서러운 마음을 내내 아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후행문에서 병중에도 못 보니 가슴이 타는 듯한 서러움을  
 전할 데가 없음을 더 들어 추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마른’ 구문  
 에서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다음은 평서형 어미, 청유형 어미, 명령형 어미, 감탄형 어미와 결합한 ‘마  
 른’의 경우이다.

(21) 가. 사름 뷔여 가옵는 주를 일가의셔 다 흐흐시노이다마는 마춤 아막것도  
 업스은 저기오매 못 보내시면 흐흐시노이다<진주하씨묘-153/곽씨-124>  
 나. 冤讐이 님을 니점죽도 흐다마는 前前에 言約이 重흐미 못 니즐가 흐  
노라<가곡원류,706>  
 다. 바회는 危殆타마는 꽃 얼굴이 天然흐고 골은 그옥흐다마는 시 소리  
 도 석글흐다<가곡원류,059>

(21)은 평서형 어미에 결합한 ‘마논’의 예이다. (21가)는 사람을 빈손으로 (선물 없이) 가게 하는 것을 일가에서 다 한하시는데, 마침 아무것도 없는 때이므로 못 보내시면서 한한다 정도로 이해되는데, 선행절은 일가에서 일반적으로 한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21나)는 원수가 입을 잇을 만하므로 잇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인데, 후행문에서 그러한 기대를 깨뜨리는 내용이 등장하여 ‘마논’이 양보적인 의미로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 (21다)는 선행문과 후행문이 서로 내용상의 대조를 보인다. 곧 ‘마론’은 (21가)에서 전제, (21나)에서 양보, (21다)에서 대조의 의미로 쓰였다.

- (22) 가. 인편의 빅면을 조금 어더 보내고 빅면 만그는 범을 기별하면 맛드로  
보자마논 잘될지 모르갨다<추사가-35>  
나. 對答호디 그릇 마리 眞實로 올타커니와 오직 世尊이 이에 와 滅度호  
시니 우리나라해서 供養호습디희 그되내 窟비사 오도다마론 舍利사  
몰어드리라 호야눌<석보상절23:53b>  
다. 나리 치위디니 엇디호거노 니즌 시 업세라마논 내 몸 안자서 게오 그  
느니 도라볼 히미 업세라.<순천김씨-149>  
라. 즈성이를 주어 달나 호니 착실이 너도 닐너라마논 즈성 브고 아니 주  
면 굶을가 불상호다<송준길가-71>  
마. 빅성의 말이 그러면 순검들 아모도록 원슈 갓흔 신문들이나 좀 보게  
호시오마논 이일에 잘못흔 순검 쏘 떼여 먹지 마시오<1898제국신  
문,0830>

(22가)는 ‘마론’이 청유문에 결합된 예이다. (22나), (22다)는 감탄문, (22라)와 (22마)는 명령문에 결합된 예이다. (22가)에서 청유문과 결합한 ‘마론’은 항상 선행문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청자의 기대를 후행문에서 깨뜨리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론’은 양보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감탄문은 평서문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탄문과 결합한 ‘마론’은 선행문과 후행문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22나)는 ‘사리불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힘들게 왔더라도 사리불을 못 얻을 것’이라고 하여, ‘마론’은 양보 정도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22다)는 항상 잇은 적이 없다

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은 돌아볼 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전제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22라)와 (22마)는 선행절의 행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나 그 행위를 했을 때의 경고와 같은 내용이 후행문에 나타나는데, 이는 청유문과 결합한 ‘마른’과 큰 차이가 없다. 이때의 ‘마른’ 역시 양보의 의미이다.

‘-지마는’은 현대국어에서 대조와 양보, 전제, 추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45)</sup> 19세기에 생성된 ‘-지마는’은 대조와 양보, 전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의 의미는 발견되지 않는다.

(23) 가. 본전 六 량을 밧아 가지고 왔스니 도로 三 량식 논호즈 흐야 그 당장에는 의데 밧인이 잠간 그 의형 밧인을 숭엿지마는 엿지<sup>46)</sup>흐야 그 일이 밧락되었던지 그 의형 밧인이 그 의데 밧인을 거러 경무청에 고소<sup>47)</sup>흐엿스니<독립신문제212호>

나. 또 물과 다른 성미는 물은 줄여지지도 아니<sup>48)</sup>흐거니와 느릴 슈도 업지마는 공기는 느리기도 홀지라<대조선독립협회회보,7>

다. 군스와 순검을 빅설흐야 나라를 어지럽게 흐는 거슬 막자는 거슨즉 그것도 세전내는 빅성을 위흐야 돈이 만히 들지마는 나라 마다 히륙 군과 순검을 크게 빅설흐야 나라를 방어흐고 보호흐게 흐니 그것도 리익이 잇서서 흐는 거시오 정부에서 <1897독립신문제4호>

라. 이런 므옴이 싱기는 거슨 그 사름이 귀신이 잇거니 싱각흐고 두려워흐는 므옴이 잇는 고로 실상 귀신은 업지마는 그 사름 므옴 가운데 그런 므옴이 곳 그 사름의게는 악귀가 되는 거시라<1896독립신문제14호>

마. 츄돌이가 제 도라와 노독이나 풀녀시면 도로 올나가제<sup>49)</sup>마는 어제 드러와 오늘 또 찌날 길 업스와 못 가며<김성일가-023>

(23가)는 후행문의 내용인 의형 맹인이 의제 맹인을 경무청에 고소한 배경에 대하여 선행문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마는’은 전제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23나)는 후행문에 제시된 공기의 성미를 선행문에 제시된 물의 성미에 견주어 대조하고 있으므로 ‘-지마는’은 대조 정도의 의미

45) ‘지마는’의 의미에 대해서는 박기선(2016)을 참조할 수 있다.

로 쓰이고 있다. (23다)와 (23라)는 각각 ‘돈이 많이 든다’, ‘귀신은 없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 후행문에서 깨뜨려지고 있으므로 ‘지마는’은 모두 양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23마)는 ‘-지마는’은 선행문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후행문에서는 이루어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의 ‘-지마는’은 전제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15세기부터 19세기 전반을 볼 때 ‘마른’이 수사의문문과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수사의문문과 ‘마른’이 결합된 문장들에서 선행문은 후행문의 사태를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마른’이 전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사의문문이 화자가 인정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의 서술적 표현을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일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에 나타나는 ‘마른’은 90% 이상이 전제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마른’이 수사의문문과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때의 ‘마른’은 전제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마른’의 기본적인 의미는 ‘전제’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마른’은 ‘양보’, ‘대조’의 의미도 보이고 있다. 이는 ‘마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인 전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전제는 선행문이 후행문에서 일어나는 사태의 근거를 한다. 후행문의 사태를 말하기 위하여 조성된 상황으로 제시된 선행문이 후행문의 사태와 서로 반대되거나 대조되는 관계에 있을 경우, 전제에서 대조의 의미가 파생되기도 하고, 선행문에 제시된 사실에 구애됨이 없이 후행문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상황 제시는 양보의 의미가 파생되기도 한다(이래호 2005:158 참조).<sup>46)</sup> ‘마른’이 대조와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sup>47)</sup>

46) 이현희(1994:62-74)에서 연결 어미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제]의 의미를 바탕으로 문맥 상황에서 [근거], [이유], [양보], [대립]의 의미가 분화되어 나온 것으로 본 바 있다.

47) 이래호(2005)에서는 ‘-건마른’의 기본적 의미를 상황제시, 부차적 의미를 대조, 양보로 보았다. 본고에서도 ‘마른’의 기본적인 의미를 전제, 부차적인 의미를 대

## 5. 결론

지금까지 고대국어부터 근대국어까지의 ‘마론’의 결합 양상과 주로 중세국어 이후의 ‘마론’의 통사적 특징, 의미를 고찰하였다.

고대국어에서 ‘마론’은 종결 어미와 결합한 한 예가 나타난다. 전기 중세국어에서 ‘마론’은 종결 어미 ‘-누’, 종결 어미로 기능한 동명사 어미 ‘-ᄃ’에 결합한 예와 선어말 어미에 결합한 것처럼 보이는 ‘-ᄃᄃᄃ’가 나타난다. ‘-ᄃᄃᄃ’ 대해서는 ‘-ᄃᄃᄃ’의 ‘ᄃ’이 생략되었다는 해석과 ‘ᄃᄃ’이 선어말 어미 ‘-ᄃ-’에 직접 결합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본고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후기 중세국어 언해 자료에서는 ‘마론’이 의문형 어미, 감탄형 어미와 결합된 예들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리-’ 개제형 의문형 어미가 쓰인 의문문들은 모두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며, 설명 의문 어미 ‘-뇨’ 역시 문맥상 의문을 요구한다기보다 의문으로 표현하는 사실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기 중세국어 언간 자료에서는 평서형 어미, 의문첨사, 연결 어미 등 ‘마론’과 결합하는 어미의 종류가 15세기의 언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어미의 종류보다 훨씬 다양하며, ‘-이쁘녀’, ‘-더니마논’의 예들도 나타난다. 후기 중세국어 ‘마론’은 수사의문문을 포함하여 평서문, 감탄문 등 모두 진술과 관련된 어미와 결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근대국어 언해 자료에서는 후기 중세국어에서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어미, ‘-더니’에 ‘마론’이 결합할 수 있었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며, 19세기 후반에 종결 어미 ‘-지’와 ‘마논’이 결합한 양상도 나타난다. 비언해 자료에서는 언해 자료의 특징에 덧붙여 이에 덧붙여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에도 ‘-마논’이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종합하면 ‘마론’은 평서형, 명령형, 의문형, 감탄형, 청유형 어미에 두루 결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은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다.

---

조, 양보로 보고 있는 점에서 ‘마론’의 의미는 ‘건마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후기 중세국어 이후 ‘마른’이 결합하는 어미의 통사적 제약과 관련하여 ‘마른’과 결합하는 평서형 어미가 취할 수 있는 선어말 어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마른’이 결합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는 선어말 어미 ‘-리-’를 결합시킨 경우가 대다수이다. ‘마른’의 선행문과 후행문에 올 수 있는 주어는 어떠한 제약도 없으며, ‘마른’의 후행문으로 오는 문장들은 평서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의문문과 감탄문, 명령문이 올 수 있었으며, 청유문은 보이지 않지만 수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령문이 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수행을 의미하는 청유문도 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른’은 전제, 양보, 대조의 의미로 쓰이며, 드물게는 선행문의 내용에 이어 후행문에 추가로 다른 내용을 더 드는 추가의 의미로도 쓰인다. ‘-지마는’도 대조과 양보, 전제의 의미 모두 쓰인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때 ‘마른’이 수사의문문과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 경우 대부분 ‘마른’이 전제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마른’의 기본적인 의미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양보, 대조의 의미는 전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고영근·남기심(198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권정림(1997), 「국어 종결보조사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곤(1978), 『한국어 조사의 통시적 연구』, 대제각
- 김승곤(1986), 『한국어 통어론』, 아세아문화사.
-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준영(1979), 『향가문학』, 형설문화사.
- 김진형(1995), 「중세국어보조사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36, 국어연구회.
- 남미정(2016), 「중세·근대국어 보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23, 국어사학회, 33-70.
- 남풍현(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ㄱ/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국어학회, 1-48.
- 박기선 (2016), 「한국어 교육 자료의 분석을 통한 ‘-지만’의 의미 기술 방안 연구」, 『한국어 의미학』 54, 231-258.
- 박영준(1994), 「종결어미 ‘-지’에 대하여-그 기원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 한국어학회, 249-266.
- 박용찬(1996), 「마란, ‘-건마란’, ‘컨마란’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61-189.
- 박진완(1999), 「수사의문문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고찰: 17세기 역학서 자료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38, 안암어문학회, 345-367.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국어학회, 375-435.
- 배영환(2012), 「현존 최고의 한글편지 ‘신창맹씨묘출토연간’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 『국어사연구』 15, 국어사학회, 241-267.
- 서재극(1974), 『신라향가의 어휘연구』,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 서정섭(1991), 「국어 양보문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창진평(1929), 『향가 및 이두의 연구』, 경성제대.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양주동(1965),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 이금영(1999), 「선어말어미 ‘-거/어-’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래호(2005), 「후기 중세국어의 ‘-거-’ 통합형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래호(201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문법적 특징」,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37-64.
- 이지영(2007), 「연결어미 ‘-지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재고찰」, 『대동문화연구』 5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19-351.
- 이현희(1993),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한국어문』 2,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장윤희(1996), 「중세국어 ‘-이쁘녀’ 구문의 구조와 성격」,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39-376.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대학사.
- 지현형(1948),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출판사.
- 하귀녀(2005),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황병순(198?), 「‘마느’에 이끄리는 접속문에 대하여」, 『배달말』 8, 1-88.
- 황선엽(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국어연구』 135.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Abstracts】

## A Diachronic Study of ‘마론(Maran)’

Lee Rae-ho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combinative aspects of ‘마론(maran)’ from ancient Korean to modern Korean and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마론(maran)’ mainly in middle Korean. In ancient Korean and earlier middle Korean, ‘마론(maran)’ is mostly combined with the final ending. However, i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words as it also appeared to be combined with pre-final ending in some cases.

‘마론(maran)’ in late middle Korean was combined with endings that were related with statements including rhetorical interrogative sentence, declarative sentence, and exclamative sentence. The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materials of modern Korean shows the combining with final endings such as ‘-지(-ji)’ and ‘마논(manan)’ in the late 19th century in addi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late middle Korean.

Letters written in middle Korean and modern Korean show the types of endings combined with ‘마론(maran)’ in a much greater variety compared with translated materials. The interrogative final ending combined with ‘마론(maran)’ had syntactic restriction of combining the pre-final ending, ‘-리(-ri-)’ whereas there were no restriction on the subject and the sentence ending of the sentences preceding or following ‘마론(maran).’

‘마론(maran)’ had been mainly used to express presupposition,

concession, and contrasting. The basic meaning of ‘마련(maran)’ can be defined as a presupposition as it had been used as a premise in most cases from the 15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Other meanings such as concession and contrasting appeared to have been derived from the meaning of presupposition.

Key words: ‘-마련(maran)’, Combinative Aspect, Syntactic Restriction, Meaning, Translated Material, Non-translated Material

이 논문은 2017년 10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11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11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